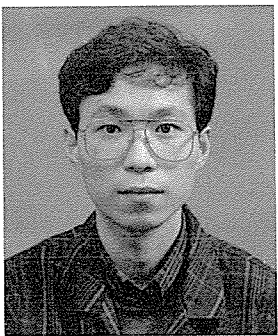


아인슈타인과 나의 進路



박 광 호

〈건국대 대학원/ 물리학전공〉

국민학교 5학년 때 친구집에 놀러간 적이 있었다. 그 집은 딸이 많은 집안이었고 친구는 그 집안의 막내이자 외아들이었다. 그 친구는 누나들과 나이 차이가 많았다. 그래서 그런지 친구 누나들은 우리들이 놀러가면 항상 귀여워해 주고 잘 대해 주었다. 그중에서도 제일 기억에 남는 누나가 막내누나다.

하루는 그 누나가 나를 보더니 『너는 머리가 동그랴게 생겨서 물리를 공부하면 잘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당시 나는 물리학이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인지 전혀 몰랐다. 물리라는 말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 이후로 「물리」라는 단어가 머리속에 남아 있었는데, 우연히 국민학교 6학년 때 아인슈타인의 전기를 읽고나서 물리라는 학문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 상대성이론이니 광전효과니 하는 말들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몰랐지만 괜히 그런 말들을 생각하면 무언가 신비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곤 했다.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대학에서 물리를 전공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중에서도 아인슈타인 같은 이론 물리학자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후에 나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다. 대학생이었을 때는 입자물리에 푹 빠져 있었다. 그 당시에는 과학잡지에 입자물리에 대한 내용이 많이 실렸었다. 그 당시에는 입자물리에 대한 책만 봐도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나던 그런 때였다. 그 결과 지금은 보지도 않는 입자물리학 관련 책들이 책꽂이에 수북히 쌓여 있지만 ...

나는 당연히 대학원에서도 입자물리를 전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했다. 하지만 운명은 이상한 것이어서 정작 대학원에 외서는 입자물리학과는 전혀 상관없는 통계 물리학을 공부했는데 그 나름대로 재미가 있다. 인생방향을 우선은 논문을 많이 쓰고, 그 논문을 유명한 외국잡지에 실고, 학회에

나가 멋진 발표를 하고, 다른 물리학자들에게 푹푹하다고 인정받고, 물리학이 어떤 학문인지도 잘 모르는 일반인에게서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는 존경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나름대로 설정해 놓은 것이다. 처음 쓴 논문이 외국 잡지에 실리고, 두번째 논문도 외국잡지에 실리고, 학회에서 발표도 했지만 나는 그다지 기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 자신조차도 잘 알지 못하고 그저 교수님이 시키는대로 쓴 논문이었고 이 논문들이 어디에 쓰일 수 있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그러던 어느날 함께 대학원에 있는 한 선배가 『물리학을 전공하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다른 일반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고 그들에게 아무런 결과도 주지 않는 논문을 많이 쓰고 연구한다고 해서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하고 나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정말이지 그러한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세상은 학문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의 개인, 어느 소수의 집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러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사회이고 여러 단체가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활동은 모든 사람들과 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학문도 나만을 위한 나의 명예를 위한 학문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순수이론 과학도 필요하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응용과학에 치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론과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도 실제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우리 젊은 대학원생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 같다.